

배포일시	2018. 8. 4.(토) 16:40 (총 2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담당자	과 장 전 재 목 예보팀장 강 길 봉	전화번호	053-956-0365

경북동해안 관측 이래 최고 더운 날씨 기록
 - 포항 39.4도(1943년이래), 경주 39.8도(2010년이래), 영덕 39.8도(1972년이래) -

□ 경북동해안 관측 이래 최고기온 기록

○ 경북 동해안지역(포항, 경주, 영덕)은 관측 이래 최고기온 1위를 경신 하였음.

- 최고기온 극값경신 현황(4일 16시 40분 기준, 단위: ℃)

지점 (관측개시일)	경 신	종 전
포항 (1943.1.1.)	39.4도(1위)	39.3도 (2016.8.13.)
경주 (2010.8.6.)	39.8도(1위)	39.7도 (2017.7.13.)
영덕 (1972.1.3.)	39.8도(1위)	38.6도 (2016.8.13.)

- 이와 같이 고온이 나타난 원인은 포항, 경주지방은 대구, 영천, 경산 분지에서 축적된 열기가 서풍을 타고 형산강지구대로 이동되어 오늘 관측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하였고, 영덕은 서풍이 소백산맥과 낙동 정맥을 넘어 승온되어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경신하였음.

○ 주요지점 일 최고기온 현황(4일 16시 40분 기준, 단위: ℃)

지점	대구	안동	상주	구미	영천	의성	문경	봉화	영주
기온	38.7	38.3	37.7	37.6	39.1	39.2	37.5	37.1	35.7

※ AWS 지점 : 신령 41.0, 하양 40.3, 기계 39.7, 금강송 39.6

□ 내일과 모레 날씨 전망

- 내일(8월 5일)은 대체로 맑고 대구와 경상북도(울릉도·독도 제외)에 폭염경보, 울릉도·독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3도에서 38도(평년보다 5~9도 높음)내외로 크게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음.
- 모레(8월 6일)는 상층의 난기가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동풍류가 유입되어 동해안지방은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내륙지방에는 오후에 기층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음. 따라서, 동해안지방은 33도 내외, 내륙지방은 35도 내외로 더위가 일시 주춤하겠음.
- 고온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수산(양식), 농업, 가축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과 농·수·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참고>

대구-경상북도 최고기온 극값 현황

(2018. 8. 4. 16시 40분 현재)

지점	관측개시일	1위		2위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07.01.31.	1942.08.01	40.0	1942.07.28	39.7
안동	1983.01.01.	2018.07.27	38.9	2018.08.01	38.8
포항	1943.01.01.	2018.08.04	39.4	2016.08.13	39.3
경주시	2010.08.06.	2018.08.04	39.8	2017.07.13	39.7
상주	2002.01.01.	2018.08.02	38.0	2018.08.01	38.0
문경	1973.01.01.	2018.08.01	37.8	2018.07.27	37.8
영주	1972.11.28.	2018.08.01	38.0	2018.08.02	37.8
봉화	1988.01.01.	2018.08.02	37.8	2018.08.01	37.4
청송군	2010.09.03.	2018.08.03	38.1	2018.07.27	38.1
구미	1973.01.01.	2018.08.01	38.1	2018.08.02	37.9
의성	1973.01.01.	2018.08.01	40.4	2018.07.27	39.9
영천	1972.01.21.	2016.08.13	39.6	1994.07.20	39.4
울진	1971.01.12.	2013.08.08	37.8	2013.08.16	37.2
영덕	1972.01.03.	2018.08.04	39.8	2016.08.13	38.6
울릉도	1938.08.01.	2013.08.08	35.4	2013.08.10	35.0

● 빨간색 오늘(8월 4일) 경신값

● 파란색 2018년 7월 27일~8월 3일 경신값